

2023. 8. 9.(수) 석간용

이 보도자료는 2023년 8월 9일 오전 06: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

보도 자료

담당부서: 서울기록원 기록정책과

서울기록원장

고 경 희

350-5610

기록정책과장

윤 정 훈

350-5611

담당자

정 찬 흥

350-5615

사진없음 사진있음 쪽수 : 3쪽

관련 누리집
(서울기록원)

<https://archives.seoul.go.kr>

나만의 서울 이야기를 한 편의 작품으로..서울기록원 희곡 쓰기 프로그램 운영

- 8월 9일부터 30일까지 매주 수요일 희곡 쓰기 프로그램 개최
- 극작가 장영의 안내를 따라 서울을 소재로 나만의 일상과 추억을 단막 희곡으로 집필
- 서울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'서울기록화'를 통한 새로운 형식의 서울기록 발굴 기대

- 서울기록원(원장 고경희)은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한 희곡 쓰기 프로그램 <한 편의 희곡이 되는 나의 서울 이야기>(8월 9일~30일, 매주 수요일, 총 4회)를 운영한다.
- 서울기록원은 매년 다양한 수집 주제로 서울시민들의 일상과 추억을 기록화하는 <서울기록화 사업>을 진행하고 있다.
- 올해 서울기록원은 서울기록화를 위한 수집 주제로 '연극과 무용'을 선정하였으며, <서울기록화 사업>의 일환으로 수집 주제 '연극'과 연계된 희곡 쓰기 프로그램을 선보인다.
- 이 프로그램은 연극 상연보다는 독자에게 읽히는 것을 주 목적으로 쓰인 희곡을 뜻하는 '레제드라마(Lesedrama)'의 개념을 빌어와 서울시민의 살아있는 일상과 경험, 추억을 한 편의 단막 희곡으로 집필하도록 한다.

- 서울기록원은 서울을 구성하는 서울시민의 다양한 삶의 모습을 동시대적으로 기록화하는 방법으로 ‘레제드라마’, 즉 희곡 쓰기를 도입하여, 서울시민이 서울에 대한 각자의 기억을 희곡 형태로 기록해 보는 시간을 마련했다.
 -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강사(극작가 장영)의 지도를 따라 희곡의 구조와 기초에 대해 배운 후, ‘나만의 단막 희곡’ 한 편을 완성하게 된다.
 - 본 프로그램을 이끌 장영은 1인 극단 ‘눈과빛과영’으로 활동 중인 극작가로, 2018년 국립극단 「예술가청소년창작벨트」에서 〈G의 영역〉이 당선되어 데뷔했다. 대표작으로 〈Fan〉, 〈낭독의 목적〉 등이 있으며, 〈나를 표현하는 글쓰기〉(경북대학교), 〈창작과 토론〉(국립극단) 등 워크숍·교육 활동도 지속하고 있다.
- 완성된 희곡은 프로그램 마지막 회차를 통해 배우들의 목소리를 빌려 낭독된다. 서울을 주제로 작성한 희곡을 서로 공유하는 시간으로 희곡 쓰기 프로그램이 마무리될 예정이다.
 - 고경희 서울기록원장은 “서울시민들이 기록문화를 더욱 흥미롭게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”라며 “서울에 대한 나의 기록이 작품이 되는 경험을 통해, 개인의 작은 역사가 한 시대의 이야기, 더 나아가 예술이 됨을 느끼고 경험하게 되길 기대한다”라고 밝혔다.
 - 프로그램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서울기록원 누리집(<https://archives.seoul.go.kr>)을 참고하거나, 서울기록원 기록정책과(02-350-5615)로 문의하면 된다.

붙임 프로그램 일정 및 포스터 1부. 끝.

붙임	프로그램 일정 및 포스터
----	----------------------

프로그램 일정

주차		내용	강사
1주 (8. 9.)	1교시(50분)	“서울에서 살아가는 사람” 희곡의 기초와 구조 배우기, 캐릭터 만들기	장영 (극작가)
	2교시(80분)	글쓰기 및 검수	
2주 (8. 16.)	1교시(50분)	“서울 속 나의 안전가옥” 서울 속 공간과 시간을 배경으로 설정 및 묘사	장영 (극작가)
	2교시(80분)	글쓰기 및 검수	
3주 (8. 23.)	1교시(50분)	“서울, 나와 내가 만나다” 내가 설정한 배경 안에 캐릭터를 배치하여 대화 쓰기	장영 (극작가)
	2교시(80분)	글쓰기 및 검수	
4주 (8. 30.)	1교시(50분)	“희곡 완성파 낭독 파티”	장영 (극작가)
	2교시(50분)	초대된 배우들의 목소리로 우리가 만든 희곡을 낭독	

포스터

